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천668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자동차 근로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현대차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5천500만원이다. 기아차도 5천만원이 넘는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

이쯤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근로자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며 절규하던 과거 근로자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땀을 흘렸는지 아느냐. 16~19년 연속 파업이라는 파나는 투쟁의 결과다.

이제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의(3천700만원)의 1.5배나 되고 대학원졸 근로자 연봉 4천678만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을 쟁기 위해 더욱 투쟁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미국의 GM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세계최고의 '해가 지지않은 자동차 제국'이었다.

GM의 복지는 1936년 12월30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주도하는 동맹파업에서 얻어진 것이다.

에서 13만6천여명이 참가한 동맹파업은 이듬해 2월11일까지 계속됐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지난해 GM은 무려 105억6천만달러(10조246억원)의 적자를 냈다.

GM의 몰락은 일본·유럽산 자동차의 공세로 실적이 악화되는 위기상황에도 '행복한 근로여건'에 취해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노조의 '위기 불감증'이 큰 요인이다.

책이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GM의 몰락은 일본·유럽산 자동차의 공세로 실적이 악화되는 위기상황에도 '행복한 근로여건'에 취해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노조의 '위기 불감증'이 큰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원화 절상에도 일본 자동차 업계의 저가공세, GM·르노·닛산의 결합 움직임 등 삼중 사중의 내외환을 겪으면서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보다 판매 규모가 4배 이상 큰 포드, 도요타 등도 제휴나 상호 투자를 모색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전통 깨는 결단 내려야

현대·기아차 노사가 한마음이 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당장 내 뱃속으로 돌아오는 파이는 좀 줄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죽이고 자신들도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GM의 자살골'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가 '전통을 깨는(Tradition-breaking)'을 깨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역주행하는 한국 자동차 노조

시설

새 경제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라

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가장 종업원이 많은 삼성전자 규모만한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바로 해답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며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18일 취임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여수 엑스포 유치 정부 노력에 달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2012 세계박람회(EXPO) 유치 준비상황을 살피기 위해 방한중인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을 만나 엑스포 여수 유치 홍보활동을 벌였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여수 엑스포 유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태에서 엑스포 여수 유치 전망은 밝지 않다.

여수는 지난 2002년 말, 2010 엑스포 개최지 결선 투표에서 상하이에 패했다.

정부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삼아 여수 유치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평칼럼

이상욱



만취한 어느 친구가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쓰러지더니 그만 잠이 들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만취해 늦게 귀가해서 가족들을 들볶는 이른바 주정뱅이 아버지와 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

으로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의 수순을 밟는다.

그러니 과음하지 마시라! 과음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제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뿐이다.

과음의 폐단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통칭해 술이라고 한다.

만취한 사람이 문제다. 과음이 상승화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직장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

극치다.

성인들 특히 애주가들은 그들에게 애정인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잔의 술은 같증을 잊게 한다.

그러나 넷째 잔부터는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다.

〈수필가·2005년5월 수성자〉

은평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평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지하철 잡상인·선교활동 적극 제지해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지쳐 지하철 전동차에 탔는데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면 승객들은 짜증스러울 뿐이다.

특정 종교인들의 선교 활동도 지하철 승객들을 괴롭힌다.

공익 요원이나 지하철 관계자들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독자마당

아이들의 올바른 식사 예절 학교에서도 지도해야

얼마전 "학교 급식·간식 시간에는 빨리 먹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서도 비슷하다.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 놓는가 하면 식사를 급하게 먹은 뒤 함께 있는 어른들에

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가 버린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식사 예절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도 학교에서 지도해줘야 한다.

▲박나영·광주시 동구 소태동

주유 중 엔진정지 운전자들 적극 협조해야

주유 중 엔진 정지 제도가 겹칠고 있다.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엔진을 정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김형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는 줄 일면서도 귀찮다며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름을 넣을 때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김형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농촌 노인 상대 물품 판매 사기 근절돼야

얼마 전 눈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날씨가 더워 잠시 쉬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농민들에게 특약약인 6년근 홍삼을 담아 만든 엑기스니 꼭 구매할 것을 요청하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종학·보성군 미력면

농촌 노인들 대다수는 영농조합이라고 하면 농협인줄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무슨 영농조합이라고 한 뒤 조합원들에게만 값싸게 판매한다고 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속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농촌에 부모를 둔 자녀라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無等鼓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우리 가까린이다.

이런 유령 우주인에 대한 의혹은 1960년대 초 우주에서 온 이상한 전파를 이탈리아 무선가가 포착하면서부터다.

그는 우주선이 발사된 후 의식을 잃었고 지구를 3회전할 때쯤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우주선이 발사된 후 의식을 잃었고 지구를 3회전할 때쯤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우주선이 발사된 후 의식을 잃었고 지구를 3회전할 때쯤 의식을 되찾았다.

한국호 우주인



이들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우주인은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스트로넛이다.

그만큼 컸으리라는 해석이다.

지난 14일 마감한 한국 1호 우주인 공모에 남자 2만9천280명, 여자 6천926명 등 총 3만6천206명이 불렀다.

대기업 회장까지 다양하다.

한국이 세계 35번째로 우주인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